

민주주의의 역사 관통하는 '행동하는 양심'을 만나다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인내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참기 어려운 모욕이나 멸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할 일을 만났다고 여겨질 때 자기감정을 객관화시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올해는 '인동초'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의 삶은 광주, 광주정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모진 역경과 고난을 감내했던 불굴의 의지는 세월이 흐를수록 빛을 발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어 화제다.



제7대 대통령 선거 포스터.

탄생 100년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 8월18일까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민주·인권·평화 '광주 정신' 연계 사진·판화·잡지 등 역사적 자료 전시

광주역사민속박물관(관장 최경화)은 오는 8월 18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를 연다.

기획전은 민주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김대중의 생애를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와 연계되는 광주정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사진, 판화, 잡지 등 당대의 생생한 역사적 장면들을 회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최경화 관장은 "김대중의 철학과 그가 지향했던 가치는 오늘 다시 많은 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역사로 평가될 것이다'라



제15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8월 18일까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 전을 연다.

고 했던 그의 말처럼 굴곡의 생애 어디에도 역사의 이름이 부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시 명칭 '다시 광야에서'는 이육사의 작품 '광야(曠野)' 제목을 모티브로 한다. 아득하게 너른 들을 포괄하는 '광야'는 고통과 고난, 인고를 함의한다.

"지금 눈 나리고/ 대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묵놓아 부르게 하리리"

이육사의 '광야'는 김대중의 삶, 그리고 광주정신과 일정부분 접맥되는 부분이 있다. 일제 강점기 울곡은 민족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육사의 삶과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역경을 견뎌낸 김대중의 삶은 '광야'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시는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행동하는 양심'은 1987년 9월 광주를 초전

화한다. 그해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수용과 김대중 사면·복권이 발표됐다. 16년 만에 광주를 찾은 김대중은 5·18망월묘역을 찾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무참하고 참혹한 시절을 견뎌야했던 광주 시민들과 김대중의 해후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극적인 울림을 줬다.

특히 87년 6월 항쟁에서 80년 5월 현정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는 당시를 살았던 이들에게는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전시실에는 '호헌철폐'라고 적힌 6월항쟁 머리띠를 비롯해 이상호 작가의 판화 '민중항쟁시리즈-중앙로 전투' 등의 자료 등이 비치돼 있다. 판화는 광주 시내 곳곳에서 항쟁의 불꽃이 타올랐던 치열한 투쟁의 장면을 사실적이며 역동적으로 구현했다.

2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에서는 모진 여정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국민을 향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고향인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에 대한 기록, 목포공립상업고등학교 재학시절 사진,

제7대 대통령 선거 포스터 등 이후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기까지의 시간이 펼쳐진다. 한편으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엿볼 수 있는 면모, 문화강국과 지식정보화 사회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도 있다.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을 기억하는 코너도 있다. 3부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했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 6·15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노벨평화상 수상 등과 관련된 자료는 김대중이 걸어온 가치 있는 삶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부유진 학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가 지향한 가치의 면면들을 더듬어 나갈 수 있었다"며 "1980년 5월 광주에는 김대중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의 정신은 5월 광주와 깊이 공명했고, 영원한 울림이 되었다"고 평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예가 애일당 김효순 8주기 서화전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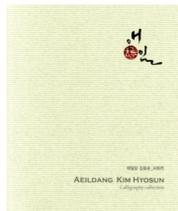
8일까지 무등갤러리...문집 출판

애일당(愛日堂) 김효순 8주기를 맞아 서화전이 8일까지 열린다. 특히 8주기와 맞물려 애일문집도 발간돼 의미가 더욱 깊다. 애일당은 제10회 대한민국서예대전에서 행초서 석전 입역령 선생시 '시우인(示友人)'으로 대상을 받는 등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열었다.

이번 서화전은 무등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일찍이 송담 이백순, 강암 송성용, 운암 조용민, 금봉 박행보 선생을 사사했던 애일당의 서예와 문인화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다.

아호 애일(愛日)의 사전적 의미는 '햇빛 사랑', '아끼는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아호가 말해주듯 그는 맑은 날을 좋아했으며, 매일매일 숲 속에서 자신만의 작품을 향한 정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55년 영광에서 태어난 애일당은 서예가로서의,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광주동신학원에서 오랫동안 한문교사로 재직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한편,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서예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예술가의 삶을 살았다.

그의 서예는 하소기(何紹基), 왕각(王鐸), 미원장(米元章)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묵향 속에서 글씨에 진심이었던 그는 대한민국서예



대전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애일당의 묵적은 해남 대흥사의 신해당(信解堂) 편액, 강진 무위사의 미륵전(彌勒殿) 편액, 소설가 오유권 선생 문학비, 해산 한승원 선생 시비 등에 남아있다.

또한 서화 전문잡지인 '한국서예'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한국서예협회 광주시지회장으로 활동했다. 서예강좌를 맡아 서예 이론을 확립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담헌 전명옥은 "작품은 그 사람과 같다고 한다"며 "뭘 그리다투시나"를 보면 열이 뻗은 두 사람이 악을 쓰면서 손을 휘젓고 발을 차올리며 다투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글씨인 듯 그림인 듯 담백 명료하면서도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한다"고 평했다.

김대현 전남대 국문과 교수(호남지방문화연구원 소장)는 "당시 애일당은 글씨는 쓰는 것뿐만 아니라 누정을 조사하면서 현판 사진도 찍고 글을 쓰는 일들을 즐겨 하였다"며 "자료 수집이나 정리 등에 있어서도 보기 드문 열정을 지니고 있어 무척 놀라



'낙화계수향5'

왔다"고 회고했다.

한편 애일당 8주기를 맞아 가족의 숙원에 힘입어 그의 동학과 선후배들이 하루 김국상, 소암 임채규, 한술 임형, 송계 문재용, 수민 김명석 등이 애일서화집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편찬위원회는 애일당 작품을 가운데 일부를 추려 서화집으로 묶었다. 예술적 혼이 담긴 명문들은 애일당을 눈앞에서 대면하는 듯한 느낌을 환기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희원 작가, 광주일보 창간 72주년 단상 글과 그림에

호남대표 정론지 비전 '생명의 꽃'에 담아

지역 예술가 등용문 역할 역사 속 등불로 존재하길

한희원 작가가 창사 72주년(4월 20일)을 맞아 광주일보에 대한 단상을 표현한 글과 그림을 보내왔다. 한 작가는 50여 년간 자신만의 화풍을 일구어 광주를 대표하는 예술가다. 이번 '생명의 꽃'은 아름다운 꽃의 의미와 아울러 호남의 대표 정론지로서의 광주일보의 역할과 비전 등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다.



'생명의 꽃'

5월에 피는 오동나무가 4월인데 산언덕을 점령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무얼 그리 급한지 한 달씩 앞당겨 피어대니 아름다움을 일찍 만끽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의 내면에는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자연현상이 도사리고 있다. 지진과 홍수, 폭염, 폭우가 삶의 현장을 덮치고 국가들은 정치적 권력유지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희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이들과 선량한 시민들이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시기에 다시 한 번 이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

몇 년 전에 전시관계로 뉴욕에 갔을 때 밤에 도착해 바라 본 마천루의 풍경은 충격이었다. 허드슨 강에 비친 거대한 빌딩의 모습은 히말라야산맥처럼 둘러싼 이 시대의 또 다른 신의 모습이었다. 종교와 예술 등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가치가 자본이라는 또 다른 신의 아래 있음이 느껴졌다. 이럴 때 예술가들은 생의 본질을 생각한다.

필자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서인지 작품에서도 이 시대 살고 있는 인간들의 근원적인 존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려보고 싶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엔날레나 아트페어에서 실험적인 현대미술이 난무하는 시대에 철학적인 접근은 자칫 옛 사고에 머무를 수 있지만 미술에서도 철학적 사고는 이러한 시대일 수록 더욱 절고한 주제이기도 하다. 작업을 하면서 한 소재에 전착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별, 마음, 바람, 나무, 인간, 우리 주위의 가장 광범한 소재를 그렸다. 다만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 그리고자 하는 소재에 생의 모습들을

투영시켰다.

꽃을 그리면서도 단순히 꽃의 아름다움만을 그리지 않았다. 생의 고통과 아픔, 절망, 희망을 그렸다. 속을 다 드러내듯이 격렬하게 꽃을 그리 때도 있었다. 생의 꽃은 꽃을 통해 생을 노래하고 싶은 심정으로 붓을 터치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외롭고 본질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얼마 전 72주년을 맞이했다. 내 나이가 70이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다. 72년의 세월동안 광주전남의 정론지로서 이 지역과 수많은 역사 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존재했다. 광주일보에 실린 지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지난했던 우리의 역사일 것이다. 광주일보는 특별히 이 지역의 예술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였다. 광주일보에서 주최한 호남예술제를 거쳐 수많은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53년에 시작된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권위있는 등용문이 되었고 배출 작가들은 한국문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자매지인 예향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잡지로 전국 문화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꿈은 지팡이의 역할을 걸어왔던 72년간의 정론의 불꽃이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기 기대한다. 진실된 언론만이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가>

스승의날 기념, 아르플래닛 '사운드 오브 뮤직'

19일 북구문화센터

최근 광주·전남 피아니스트들이 주축이 돼 창단한 '아르플래닛' (대표 최혜지)이 지난날 ACC에서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르플래닛이 오는 19일(오후 3시)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스승의날 기념 연주회 '사운드 오브 뮤직'을 연다. 단체 소속 피아니스트는 물론 중학교, 음악학원 선생님(강사)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아르플래닛 소속 피아니스트 김민호가 연주하는 쇼팽 야상곡 'E플랫장조 Op.9.2번'·B장조 Op.62.1번'으로 막을 연다. 전남대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재학 중인 뒤 에두프라임·허밍사운드에서 피아노 강사로 있는 유수민이 들려준다.

'리플레토 페르페이즈 S.434'도 레퍼토리에 있다. 리스트가 자주 활용한 '페르페이즈'는 오 페라곡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하며 기교적 화려함을 뽐내는 기법이다. 연주에 건국대·한양대(대학원)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전세미.

이 밖에도 한국음악지도자협회 회원, 목포 제이 음악학원 원장으로 있는 박민정은 쇼팽 '발라드 1번 Op.23'을, 목포여중 음악교사이자 예술단체 'cadenza' 대표 정찬영은 쇼팽 '스케르초 1번 B단조, Op.20'·'스케르초 3번 C장조, Op.39'를 연주한다.

최혜지 대표는 "스승의날과 맞물려 강사, 교사 등 '음악 선생님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폰 트랩가의 음악 선생님 역을 맡은 '마리아'에게서 영감을 얻어 공연명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11일 '색채의 멜로디'라는 주제로 빛고을 아트스페이스에서도 공연을 계획하고 있



아르플래닛 창단 기념 음악회에서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예은(왼쪽부터), 피아니스트 백계준 <아르플래닛 제곡>

다. 지역 청년작가 유소연과 콜라보하는 7월 무대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석 초대(네이버 폼 예약 필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